

■ 주요 기사

○ 경총, 채용 시 재학생 우대조항 폐지 권고 (3건)

중앙	경총 “채용 때 재학생 우대 조항 폐지” 권고
매경	“채용시 재학생 우대 조항 폐지를”...경총, 취업청탁 근절 권고
한경	경총, 회원사에 ‘채용시 재학생 우대’ 폐지 권고

○ 취업난 관련 (3건)

한경	극심한 취업난...건설현장 내몰리는 20대
한겨레	취업자 50대 이상>20~30대...잇단 퇴직땀 ‘노동력 절벽’
	인구 줄어들면 취업난 사라질까?

○ 올해 30대 그룹 고용 축소 관련 (2건)

동아	30대그룹 올해 1만4000명 감축
한겨레	30대그룹 올해 1만4천명 고용 축소

○ 대우조선 노조, 자구계획 동참 거부 (2건)

조선	대우조선 노조, 자구계획 동참 동의서 제출 안해
매경	“대우조선 노조 협약서 안내면 법정관리·청산“

○ 아르바이트 시급 관련 (2건)

한경	서울 알바 평균시급 6756원...강남구 6989원 가장 많아
한겨레	고려대쪽 알바 시급이 높았다...생활임금 7145원 이상 지급하는 곳 20%뿐

○ 철도파업 관련 (2건)

동아	[간추린 뉴스/ 단신]코레일, 철도파업 여파 기간제 계약 1년으로 연장 外
경향	국회, 철도파업 중재나서...노조, 수용의사

■ 주요 칼럼 · 사설

○ 대우조선 노조 파업 비판 (1건)

매경	[사설] 대우조선 노조 지금이 파업투쟁 나설 때인가
----	--

○ 노조 가입 필요성 제기 (1건)

경향	[오민규의 노동과 삶]풍파를 이겨내게 해줄 촛불과 노동조합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노동	제목	대우조선 노조, 자구계획 동참 동의서 제출 안해 B6면
		내용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당초 채권단이 기한으로 정한 16일에도 파업 행위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구계획 동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음
중앙	고용 복지	제목	경총 “채용 때 재학생 우대 조항 폐지” 권고 A14면
		내용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계 권고’를 채택했다. 이 자리엔 박병원 경총 회장과 조규옥 전방 회장, 김영태 SK 부회장 등 회장단과 이사진 70여 명이 참석했다.
동아	노동	제목	30대그룹 올해 1만4000명 감축 A2면
		내용	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255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고용 직원은 98만 8345명으로 집계. 지난해 말 이들 기업의 재직 인원 100만 2653명보다 1만4308명(1.4%)이 줄어든 것
		제목	[간추린 뉴스/ 단신]코레일, 철도파업 여파 기간제 계약 1년으로 연장 외 B4면
		내용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파업에 따라 1~3개월의 단기 기간제로 채용한 직원 207명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고 16일 밝혔음
매경	노동	제목	“대우조선 노조 협약서 안내면 법정관리·청산“ A12면
		내용	임종룡 위원장은 “내일(17일)까지 대우조선이 노사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단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자구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날 수 없다는 점을 노조가 인식해야 한다”고 발언
		제목	고용부, ‘최순실 사태’ 부담 느꼈나…한노총 예산 16억 다 시 지원키로 A12면
		내용	정부가 한국노총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결국 재개.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후 고용노동부는 매년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지원하던 예산을 올해는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정부가 물러선 셈
	고용 복지	제목	[사설] 대우조선 노조 지금이 파업투쟁 나설 때인가 A39면
		내용	대우조선이 끝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근로자들은 지금 자구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함을 노조는 직시해야. 또 대우조선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와 이곳 근로자들의 생계도 생각해야 함
		제목	“채용시 재학생 우대 조항 폐지”…경총, 취업청탁 근절 권고 A16면
내용	경총은 고용세습과 취업청탁을 근절하고 채용 시 재학생 우대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 또 스펙과잉으로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채용과정에서 과도한 스펙이나 무리한 경력을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		

매체명	주 제	내 용	
한경	노동	제목	서울 알바 평균시급 6756원…강남구 6989원 가장 많아 31면
		내용	올해 3분기(7~9월)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756원으로 법정 최저임금(6030원)보다 726원, 전국 평균(6556원)보다 200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복지	제목	경총, 회원사에 '채용시 재학생 우대' 폐지 권고 4면
		내용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고용세습과 취업청탁을 근절하고 대졸 신입사원 채용 시 재학생 우대조항을 폐지하자고 회원사에 요청했다
		제목	잡자는 여성인력 깨우려 '103만엔 벽' 깨는 일본 10면
		내용	일본 정부와 경제계가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103만엔 벽' 허물기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현행 연소득 103만엔(약 1100만원) 이하로 정한 배우자 특별공제의 연봉 상한을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제목	농협금융 계열사, 명퇴 신청 받는다 14면
		내용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이 오는 21일까지 임금피크제 대상자 등을 상대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한겨레	노동	제목	금속노조 "30일 박 대통령 퇴진 위한 국민파업하겠다" 8면
		내용	이번 파업은 임금·단체협상과는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법적으로는 불법. 불법파업은 조합원 개인의 임금 손실은 물론, 회사 쪽의 손해배상소송이나 노조 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뒤따르는 경우가 많음
	노동	제목	고려대쪽 알바 시급이 높았다…생활임금 7145원 이상 지급하는 곳 20%뿐 13면
		내용	서울시가 16일 알바천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3분기 알바천국 사이트에 등록된 채용공고 31만3089건(107개 업종)을 분석한 결과, 고려대학교 주변의 평균 시급이 7059원으로 가장 후한 것으로 나타남
	노동	제목	30대그룹 올해 1만4천명 고용 축소 19면
		내용	CEO스코어 조사…전체 고용도 처음으로 100만명 하회. 삼성 9500명 감원 최대규모…엘지는 835명 증가 대조
	고용 복지	제목	취업자 50대 이상>20~30대…잇단 퇴직댄 '노동력 절벽' 10면
		내용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50대 이상 장년층 취업자는 965만4천명으로 20~30대 취업자(936만9천명)보다 많았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장년층 취업자가 청년층보다 많아진 것
제목		인구 줄어들면 취업난 사라질까? 10면	
내용		생산가능인구 내년부터 감소. 2050년까지 1천만명 이상 줄 듯. 소비 함께 줄면 노동수요 감소. 저성장 이어져 일자리 경쟁 지속	

매체명	주 제	내 용	
경향	노동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 절반의 승리…노동조건 개선 위해 계속 싸울 것” 12면
		내용	<p>용역업체 간부로부터 성추행과 폭언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삭발투쟁까지 한 김포공항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일부 보장받는 성과를 거뒀다.</p>
		제목	국회, 철도파업 중재나서…노조, 수용의사 12면
		내용	<p>장기화되고 있는 철도파업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철도노조 측은 정치권의 중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p>
		제목	[오민규의 노동과 삶]풍파를 이겨내게 해줄 촛불과 노동조합 28면
		내용	<p><오민규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이제 100만 촛불의 여세를 이어갈 노동조합 결성의 물결을 만들어갈 때이다. 저임금도, 비정규직의 고통도, 위협의 외주화도, 노동조합의 힘을 통해 바꿀 수 있다</p>

<끝>